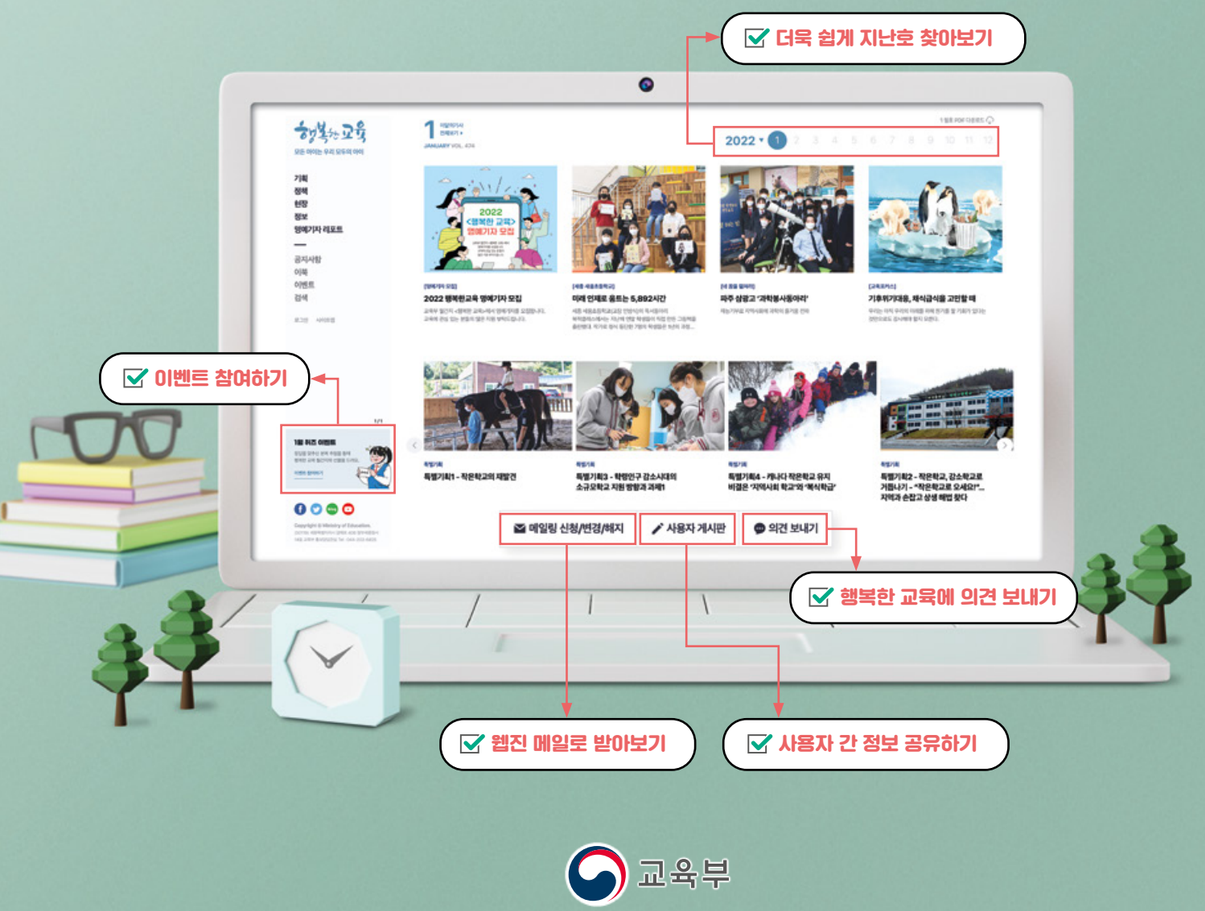
행복한 교육
웹진 사용 설명서

http://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 이용이 불편하셨다고요.
새 단장을 통해 온라인 구독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생생한 교육현장 이야기, 깊이 있는 정책을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교육부

03 vol.476
2022 MARCH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에듀피플
강명옥 강원 양양초등학교 교사
22년째 우리들은 1학년

10 꿈이 영그는 현장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1호,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지평 넓힌다

40 교육웹툰
국가장학금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46 교육포커스
AI교육과 윤리원칙

AI 교육!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3

vol.476 2022 MARCH

COVER STORY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는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맞으며 공백 없는 보육과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에 있는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 다채로운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다.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최성부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조재익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서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획

"새 학기, 흔들림 없는 학사운영을 준비합니다"

24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이렇게 달라집니다

26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학교별로 학사운영 유형 결정

29
세심한 관찰로 '느린학습자'의 눈높이 찾기

32
전국 '과밀학급 해소' 특명…해법 찾기 나선다

02 네 꿈을 펼쳐라
대전문지중학교 학생동아리 '소프트웨어 새길'
국가유공자의 인생을 영상에 담다

06 에듀피플
강명옥 강원 양양초등학교 교사
22년째 우리들은 1학년

10 꿈이 영그는 현장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1호,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지평 넓힌다

16 혼자보기 아까워서

18 교실혁명
1년을 좌우하는 새 학기 학급경영 꿀팁

36 정책을 말하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40 교육웹툰
국가장학금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42 교육자치시대
경기도교육청_ 한발 앞서가는 고교학점제

45 명예기자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학의 변화

46 교육포커스
AI교육과 윤리원칙

52 진로직업인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_ 박소영 코햄체 대표
버려진 웨딩드레스의 화려한 변신

56 체험! 진로현장
지구를 지키는 디자이너가 될래요!

58 일상의 쉼표
통영 봄 바다 건너 한산도 여행

62 이달의 교육뉴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外

64 독자마당



대전문지중학교
학생동아리
'소프트웨어 새길'

국가유공자의 인생을 영상에 담다

국가유공자의 나라 사랑과 무명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영상 및 사진앨범 제작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특한 학생들이 있다. 바로 대전문지중학교(교장 곽필선) '소프트웨어 새길'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국가유공자 외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인터뷰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한층 성장해 가는 학생들을 만나보자.

글 _ 이경화 명예기자

동아리 운영 사례 (+면접)

1998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이철휘 할아버지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다. 당시 북한군에게 사살당할 뻔했던 위기를 넘기고 도리어 북한군 기지를 발견하는 데 공로를 세운 군인 '이철휘'.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흐른 뒤 제대를 한 그는 전쟁을 잊고 건설 현장을 누비며 기술자로서 살아왔다. 백발이 된 할아버지의 단 한 가지 바람은 고향인 함경남도 단천에 가보는 것이다. 이철휘 할아버지의 인생을 담은 영상 '전쟁의 두 의미'에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전쟁,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전쟁이 옳은 일이었는지 묻는다.

이 영상은 대전문지중학교(교장 곽필선) 자율동아리 '소프트웨어 새길' 회원인 안성규, 김주한, 김지호, 염예승 학생이 만들었다. 이같이 국가유공자의 나라 사랑과 무명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영상제작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 '새길' 동아리는 지난해 대전광역시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직접 만난 역사의 한 페이지

'소프트웨어 새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코딩을 배워 앱 개발을 하자는 목표로 만든 자율동아리로 평소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들 10명이 모여 앱인벤터(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해 학교 앱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동아리를 담당했던 기현이 교감은 학교 앱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국가유공자 영상 만들기를 넌지시 제안했다. 기 교감은 "국가유공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애국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취지에 공감해 국가유공자 영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더불어 홀로 사는 어르신으로 대상도 확대했다. 아이디어 회의 끝에 학생들은

1 국가유공자 이철휘 할아버지댁에 방문한 '새길 '학생들
2 현충원의 비석을 닦는 학생의 모습
3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국가유공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영상제작과 함께 사진앨범, 기념컵과 기념배지를 선물하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은 전민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이수아(2학생) 학생은 "인터뷰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국가유공자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철휘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김지호(1학년) 학생은 "국가유공자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처음인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전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길' 학생들은 무명용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현충탑에는 전쟁에서 전사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이름만 남아 있는 무명용사와 시신을 찾지 못해 현충원에 묘지를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길 학생들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전쟁의 흔적을 생각하며 구슬땀을 흘리며 비석을 닦았다. 염예승(1학년) 학생은 "날씨가 더웠지만, 우리가 무명용사들 덕분에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닦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3



1



2

배움을 나누며 성장하는 우리

영상제작을 위해 학생들은 인터뷰를 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며 사진 자료를 스캔해 데이터로 만들었다. 또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등 아이디어로 채우고 영상에 삽입될 음악을 찾아 편집하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냈다. 바쁜 일정 탓에 제작 기간이 길어져 죄송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뻐하셨기에 좋았다는 학생들.

이에 더해 동아리 회원들은 학급 친구들도 국가유공자와 무명용사의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아 영상 제작과정과 내용을 학교에 전시하고 학급자치활동 시간에 영상을 발표했다.

기현이 교감은 "교사가 큰 그림을 그려주고 기다려 주면 아이들은 늘 해낸다."라며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새길'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결에서 감흥이 교육철학 읽을 때!!

"국가유공자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처음인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Mini Talk



이지유(3학년·졸업생) 학생

코딩에 관심이 많은 걸 선생님께서 아시고 권유해 주셔서 동아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길'이라는 이름도 선생님과 제가 지은 거예요.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가자는 뜻이죠. 이번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해 선물해 드렸는데 우리들의 영상 만드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셔서 보람 있었어요.



홍서연(2학년) 학생

2학년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친한 친구들과 함께해서 인터뷰가 어렵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모두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어요. 오히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많이 베풀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성규(1학년) 학생

1학년은 현충원에 계신 무명용사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해서 현충탑을 참배했어요. 무명용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우리가 다 그분들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비석을 더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영상을 제작한 친구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마음을 영상에 담아보자고 이야기했어요.



1학년 담임 22년 차

강명옥
강원 양양초등학교 교사

22년째 우리들은 1학년

강원도 양양초등학교 강명옥 교사는 교직에 들어선 지 올해로 36년째다. 이 중에서 22년 동안 1학년 담임을 맡아 왔다. 해마다 학교 교육의 시작점에 서 있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를 만났다.

글_ 김혜진 객원기자



※ 강명옥 선생님은 3월 1일자로 강현초등학교로 전보 발령 되었음.

"1학년 아이들은 봄 햇살처럼 순수하고 맑아요. 교사가 이끄는 대로 가르침의 흡수도 고학년 아이들보다 무척 빠르고요. 갓 입학해서는 낯설고 어설펐던 학교생활도 2학기 후반부가 되면 확 달라져 있지요. 저와 함께 1년을 생활하다가 헤어질 때쯤엔 부쩍 더 성장해 있는 아이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교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에요."

강원도 양양초등학교 강명옥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극한직업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어렵고 까다롭다는 1학년 담임을 22년째 연속해서 맡아 오고 있다. 2022년 새 학기에도 역시 1학년 담임이 예정돼 있다. 올해로 교직 생활 36년째, 그 절반 이상을 1학년 담임을 맡아 온 셈이다. 이러한 1학년 담임 고수의 이유에 대해 강 교사는 "학교 교육의 첫 시작점에서 아이들의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책임감과 그 보람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들려줬다.

1학년 담임의 덕목은 눈높이 교육

지난 2월 10일 오후, 양양초 도서관 한 편에서 기자와 마주 앉은 강 교사는 새 학기 교육과정과 학급경영계획을 새로 설계하느라 한창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년 이상 1학년 아이들과 함께 해오고 있지만, 해마다 새로운 봄학기를 맞이할 때면 여전히 새내기 교사처럼 설렌다는 강 교사다. 그가 1학년 담임으로서 늘 놓치지 않으려 강조한다는 덕목은 바로 아이들과 맞춤한 '눈높이' 교육이다.

"첫 교직 생활을 오색초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주로 고학년 담임이었어요.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고학년을 맡다가 1학년 담임을 처음 했을 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적응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이제는 20여 년의 지도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지금은 새로 1학년을 맡는 후배 교사들과 함께 학습지 제작 등 이런저런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요.”

강 교사는 해마다 한 학기가 종료되면, 아이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결과물들을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발표하고 전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직에 들어선 이후 옮기는 학교마다 늘 빠지지 않고 있는 강 교사만의 학급행사다. 특히 저학년인 1학년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추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입학하기 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좀 더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1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건 아니야!’

“1학년 담임을 오래 하다 보니 첫 학부모 경험을 하는 분들과도 많이 만나게 돼요. 3월이 되면 마치 입학하는 신입생 아이들처럼 부모님들도 설렘 반, 걱정 반이 교차하는 시기죠. 저로서는 학부모와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강 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경영 안내문’을 보내거나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할 때면 늘 인용하는 글귀가 있다.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건 아니야.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또 어떤 꽃은 가을에 피지.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멋진 꽃들도 있어. 니가 어떤 꽃일지는 몰라. 다른 꽃이 벌써 폈다고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 넌 누구보다도 멋진 너만의 꽃을 피울 테니까.’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의 <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각하다>에 실린 내용 중 일부다.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중심이 돼야 해요. 이때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대신, 느긋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죠. 저는 외부강의를 할 때도 학부모님들께 학교에 들어오기 전, 과중한 선행학습은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를테면 입학 전 한글 공부와 수 개념까지 미리 깨우치고 오면, 수업시간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요.”

학교에서 재미를 느끼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선행학습에 치중한 아이는 학교생활이 금세 시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소통 등 사회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입학하기 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좀 더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당부는 늘 빼놓지 않는단다.



2

12 강명옥 교사는 사회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초등 1학년 시기, 가정에서부터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한다. 강 교사와 양양초 1학년 아이들

아이들 가정마다 학습지 배달하는 선생님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2020년에 입학한 아이들에게는 유독 안타까운 마음이 더 남아 있어요. 신입생이 되면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5월 말까지 입학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다른 해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1학년 담임을 하는 동안 기본교육에 충실한 아이들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그동안의 다짐이 이때만큼은 잘 구현되지 못한 것 같아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죠. 올해 이 아이들이 3학년에 올라가지만, 그 기본 학습의 미진함이 해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년 전, 입학식은 물론 등교마저 어려워지면서 강 교사는 1학년 담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가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과제형 학습지를 직접 제작, 20명의 반 학생 집에 일일이 배달에 나섰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선생님들의 집 앞 학습지 직접배달에도 그만큼 더 시간이 소요됐다. 새로 입학하는 아이도, 선생님도 서로 대면할 수 없으니 사진으로나마 먼저 얼굴을 익혀야 했던 시기였다.

“어렸을 적 꿈이 교사였어요. 졸업생 제자들이 그동안 잊지 않고 찾아주고, 학부모로부터도 ‘교사가 천직이시네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유년의 꿈도 이루었고,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 선생님 할 겁니다.”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교사’로서 정년까지 앞으로 2년 남았다는 강명옥 교사, 퇴직 후에는 지역의 아동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봉사자로서의 활동을 계획 중이기도 하다.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1호,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지평 넓힌다

무엇인지 어떠양!

'학교돌봄터'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맡고 있다. 기존의 돌봄교실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적용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6월 문을 연 '학교돌봄터 1호'인 판교대장초등학교를 찾아가 그간의 운영성과를 들어봤다.

글 _ 서지영 객원기자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1호

2021년 9월부터 전국 19개 학교에서 학교돌봄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부처 연계·협력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돌봄 수혜인원을 3만 명까지 확대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안전한 아이들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의 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적인 공간을 가구의 색채로 구별해둔 점도 인상적이다. 최소영 센터장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라며 이끈 곳에는 아이들 키 높이를 배려한 책장과 책들,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커다란 모니터, 미술시간에 만들었음 직한 작품들이 책장 위에 일렬로 전시되어 있다.

"방학에도 학교돌봄터는 쉬지 않아요. 공백 없는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긴 시간이지만 지루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는 은빛독서나눔이와 미술 프로그램을 해요. 공간이 참 예쁘죠."

최 센터장은 학교돌봄터가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돌봄인 만큼 학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부에서 진행하는 독서활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익숙한 학교 체육관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 모든 건 학교와의 소통과 협의가 전제되어야겠죠."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유휴교실을 지자체에 5년간 무상임대해주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공성이 보장된 돌봄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위탁도 가능하다. 위탁 시에는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 설치와 운영이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이 나면 학교가 빌려준 해당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1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에는 아이들 키 높이를 배려한 책장과 책들,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2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의 조리실. 한 아이당 급·간식비 5만 원만 지불하면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4 5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학생들 성장발달에 보탬이 되고 있다.



진행된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이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1:2의 비율로 분담한다. 때문에 학교돌봄터 운영에 있어 관계부처 간의 협업은 필수적이고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 또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는 성남시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개소할 당시 센터장, 교사 3명(종일제 2명, 반일제 1명), 조리사 1명 총 5명이 한 팀을 이뤄 출발했다. 교사들은 모두 보육과 복지 전공자로 채용하면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첫 학기에 40명의 아이들을 추첨했는데 대기자만 3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는 돌봄 수요가 많음을 입증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쏠림 현상의 또 다른 이유는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라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학교돌봄터는 학부모가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 문을 활짝 열어둔다. 학부모가 야근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저녁 8~9시까지도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진다.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오전 7시부터 9시에 문을 여는 틈새 돌봄도 가능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한 아이당 급·간식비 5만 원만 지불하면 이 같은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돌봄터 입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놀이체육·창의미술 등 수요자 의견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에서 자신 있게 강조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다. 여타의 돌봄교실이나 돌봄센터와는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 성장발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최 센터장의 욕심이 반영된 결과다.

최 센터장은 과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에서도 센터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자유시간, 자율학습 등 프로그램 구성에 빈틈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식의 돌봄 비중이 높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공백 없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짜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물론 인력이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학교돌봄터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판교대장초가 1호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생길 학교돌봄터의 본이 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먼저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고려해 체육활동은 매일 필수적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외부강사가 매주 목요일에 와서 공놀이, 줄넘기, 피구, 요가, 달리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학교돌봄터 체육수업이 있는 날에는 학원이나 학교 내 방과 후 수업도 빠지고 학교돌봄터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키즈팜 생태학습 수업이 진행된다. 따뜻한 돌봄터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아이들이 직접 돌봄터 앞 베란다에 흙을 뿌려 텃밭을 마련하고 씨앗을 심어 새순이 올라오는 걸 관찰하는 시간이다. 곤충과 버섯 등 동식물을 돋보기로 관찰하고 만져보면서 성장과정도 알아가는 등 생명을 가꾸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성남시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창의미술 시간은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아동복지와 미술을 전공한 외부강사가 와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미술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해당









수업은 미술치료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레고 활동 프로그램이다. 소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멋진 작품을 만든다. 만든 작품은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돌봄터 앞에 진열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품은 레고왕으로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수여하고 있다.

또 성남시 중앙도서관과 연계한 은빛독서나눔이 프로그램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퇴직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논술 지도도 해준다. 이외에도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중국어, 도예체험, 음악, 시청각 수업 등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기꺼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학기말에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묻고, 수요를 파악해 다음 학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자체적으로 돌봄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매우 만족이 75%, 만족은 22.5%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항목에서도 만족 이상을 체크한 항목이 운영시간 97.5%, 응급조치 92.5%, 활동사진 공유 97.5%, 프로그램 90%, 아동 만족도 95%, 교사와의 소통 99.5% 등 대다수가 9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학교돌봄터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학교돌봄터 확충해야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가능해

지난 6개월은 기존 돌봄과는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면 입소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시기이기도 하다. 낙첨된 학부모들이 추첨 기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가 하면 입소 인원을 확대하라는 요구까지, 교육청과 지자체에 접수된 각종 민원들은 모두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는 개소 6개월 만에 또 다시 구조변경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민원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추가적으로 돌봄 인원을 20명 늘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기존 2반 40명에서 3반 6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3반 60명의 아이들이 충돌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 공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종사자 추가 인력확보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적은 돌봄전담사들이 사명감 하나로 수당도 없이 초과근무를 불사하면서 이끌어왔던 터라 최 센터장의 고민이 깊다.

"종사자들이 3교대로 일하고 있어요. 출근을 탄력적으로 하니까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교사도 있고,

> "학교돌봄터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느껴요."

11시에 출근하는 교사도 있어요. 이제 3월부터는 9시에 출근하는 교사 한 명과 센터장인 제가 6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이들 챙기느라 점심식사 못하는 건 다반사예요.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호봉제 도입이나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이 돼야 종사자들의 장기근속도 가능해질 것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더 투입돼서 추가인력 확보도 이뤄져야 해요."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더해 최 센터장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존 돌봄교실 역량강화로 인해 자칫 학교돌봄터 사업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까 봐, 신규 사업이 설 자리를 잃을까 마음이 편치 않다.

최 센터장은 학교가 주체가 되는 기존 돌봄교실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돌봄터의 역할에는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에서도 큰 차이를 느낀다는 것.

"교육부에서 학교 주관의 돌봄교실 내실화를 강조하는 기사나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아동복지 실무자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전공자의 역량은 확연히 구별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역량 채우기식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센터장의 역할도 필수적이라며 강조한다. 학교돌봄터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장이 있어야 시설, 인력, 프로그램, 보육, 상담 등 일관성 있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돌봄터는 이제 첫발을 내디딘 신규 사업이다. 온 것보다는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다. 앞으로 가야하는 그 길에는 제도, 예산, 인력, 시스템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다.

혼자보기 아까워서



윤영미 부산보건고등학교 선생님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코로나19로 인해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반 아이들에게 소홀해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아이들은 선생님께 문자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담임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었습니다.

구영목 혜화병설유치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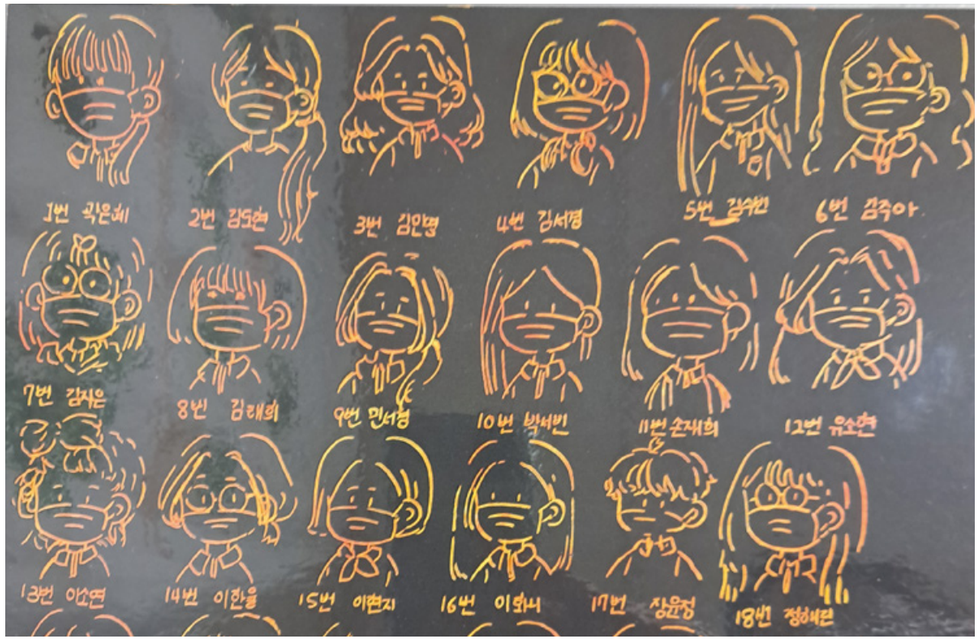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예절교육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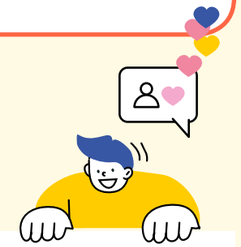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알록달록 예쁜 한복 차려입고 즐거운 설날맞이 전통놀이를 하는 아이들. 평소에는 팝콘처럼 톡톡 튀고 장난꾸러기였던 아이들이 오늘은 어찌나 다소곳하고 자세가 바른지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키도 쑥쑥 자라고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길 바래요~

안미영 제물포여자중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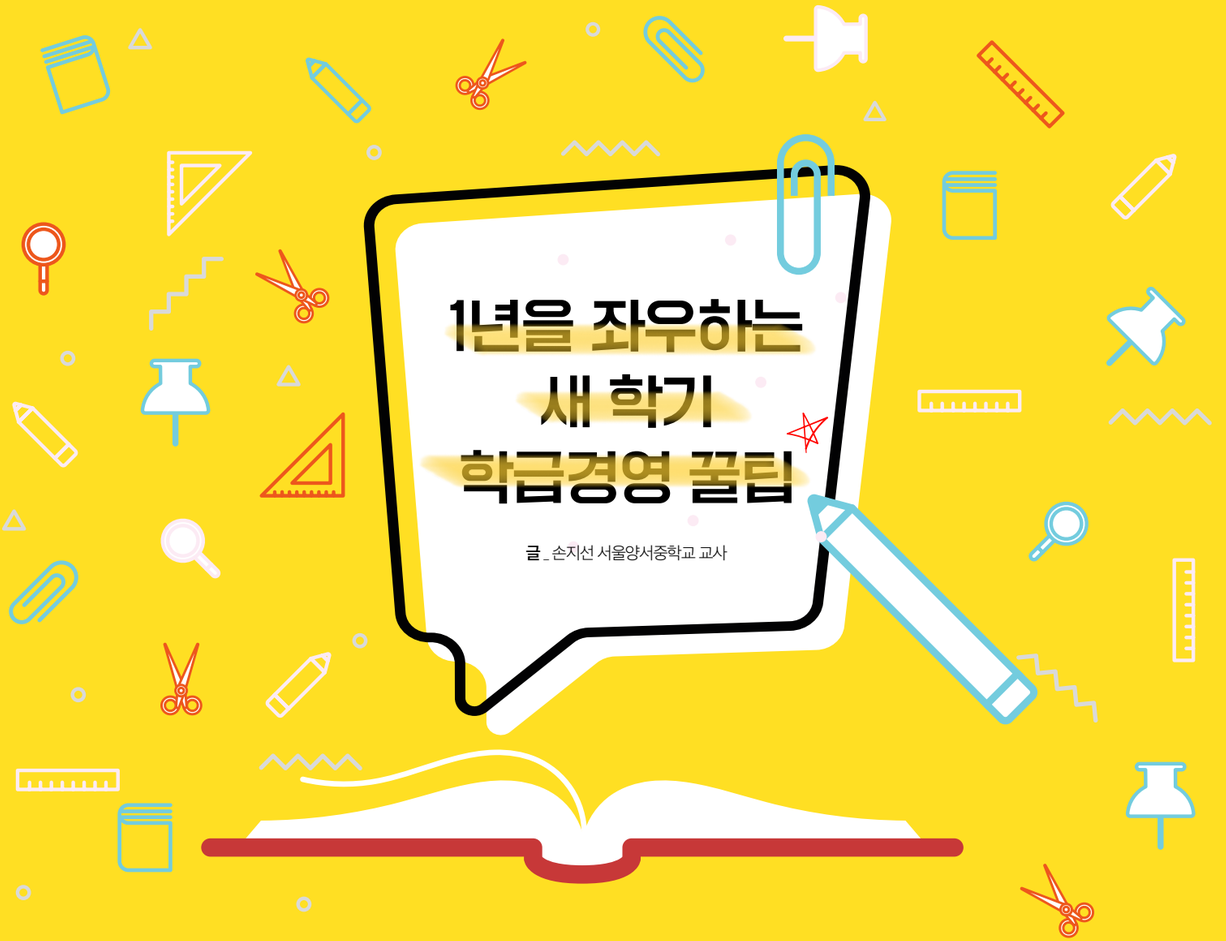
마스크 안 쓴 얼굴이 낯설어진 교실 풍경

코로나19 2년 차를 보내던 2021학년도에 아이들이 그린 친구들. 마스크 안 쓴 얼굴이 낯설어진 우리의 교실 모습입니다.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1년을 좌우하는 새 학기 학급경영 꿀팁

글 _ 손지선 서울양서중학교 교사

주변을 둘러보면 새 학기에 만날 담임반에 대한 걱정으로 울렁증이 생겨 밤늦게까지 잠 못 드는 선생님들이 많다. 학급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학급경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해 담임교사가 학급경영에 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반 분위기를 잡는 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몇몇의 특별한 선생님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급담임이 학급경영의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반을 끌고 나가는 것은 생각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 연초에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담임반 학급경영을 치열하게 준비하여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보도록 하자.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 네트워킹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대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아주 특별한 세대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심한 벌이 스마트폰 압수라고 꼽힐 정도로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소통하기 때문이다. 늘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된 우리 학생들의 현상과 필요를 인지해야 한다.

학급경영 (+연결)

: 재미(꿀잼이냐 노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즘 학생들에게 재미는 삶의 이유와도 같다. 친구와 노는 것도 재미가 중요하고,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재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게임,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자신의 손가락으로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아이들은 끊임없이 재미를 찾아 돌아다닌다. 재미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곤욕스러운 일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미를 찾아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학교 안과 밖에서의 행동의 허용 폭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학급 안에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는 방법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학급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때이다. 담임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다.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 설득과 협상이 필요한 이유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어른이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해'라고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할 때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했을 경우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반 기초 닦기

한 해 학급살이는 3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첫날부터 몇 주 사이에 학급의 주도권을 담임이 가져갈지, 학생들이 가져갈지가 결정된다. 담임이 원하는 학급의 모습이 있다면 이를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담임이 원하는 학급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큰 틀을 소개한다.

① 학급 경영계획서

담임 교사가 꾸려나가고 싶은 우리 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 및 기획이 필요한지 적어보는 학급경영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에서 힘이 생긴다.

1

1. 2021년 학급 목표
-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학생(활동 : 학급 규칙)
-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학생(활동 : 아침 조회 인성교육)
-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는 학생(방법 : 1년 후 나에게 편지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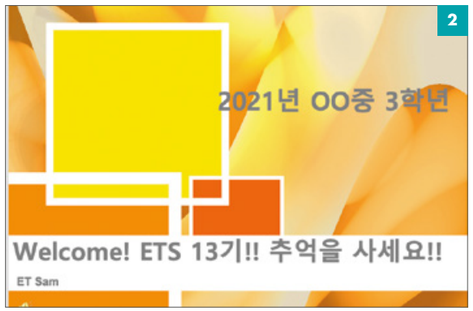
2. 첫 수업 날 해야 할 일
- 학부모님 특방 만들기
- 학생 특방 만들기(학생들 개인적 특방 금지)
- 학부모님께 편지 전달하기(교사 소개)

3. 온라인 관련 고민
-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친해지고, 학생들끼리 어떻게 유을지
- 아침조회 시간에 뭘 해야 할지
-

② 첫날 오리엔테이션

학급담임으로 학생들에게 담임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우리 반의 목표를 보여주고, 우리 반이 행복한 반으로 지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는 자료이다. 첫날에는 아직 학생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을 텐데, 이때 담임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어떤 모습으로 학급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2



③ 학부모 통신문

첫날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긴장하고 있을 학부모에게 먼저 담임 교사가 편지 형식으로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반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안내한다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담임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향후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와 좋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담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3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3학년 3반

서로 늘 존중하고 인정하자

2018.3.2 월요일
발행인: 손지선

3학년 3반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언제나 상큼함과 건강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덕의 귀한 자녀분의 담임을 맡게 된 손지선입니다.
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관과 교육 활동 계획을 알려드리고, 부모님들과 활발히 소통하고자 우선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올지중학교는 제 두 번째 학교이며 올해가 마지막 5년째입니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도 졸업하고 저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올지중학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1학년 때부터 쭉 따라 올라오면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 모두 올지중에서 마지막 해를 맞아 많은 좋은 추억 및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담임으로 3학년 5년, 2학년 3년, 1학년 1년간 담임을 맡아왔습니다. 학년별로 발달과정 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중학교에서 3년을 산다는 의미 있는 학년입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

4



5

3학년 3반이 정한 학급 규칙

지킬 건 지키자.	지킬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
실내 공놀이 하지 않기	1주일 보관
심하고, 과격한 장난하지 않기(뛰지 않기)	종례후 5분 명상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기(딴짓하지 않기)	백백이 1/3장
타반 출입하기/타반 친구 데려오지 않기	벌점 1점
진한 화장/염색하지 않기	화장 지우기/염색 물기+ 벌점 1점
욕을 쓰거나 (언어)폭력 금지 / 놀리지 않기	욕 백백이 5번 접어서 1/3
지각하지 않기	지각한 날 하루 청소하기.(종치고 들어오면 지각, 3회 이후 일주일씩 누적 청소)
사복입지 않기/실외화 착용하지 않기	사복 보관/청소 하루
책상 낙서 금지	지우기
수업 준비 꼭 하기/자리에 앉아있기	종례후 5분간 명상
친구 물건 마음대로 갖고 가져가지 않기	큰절 후 사과하기
청소 도망갔시	청소 1주일
화산물 제출기한 지났시	청소 하루
수업 시간 무단으로 자리 옮겼시	종례후 5분간 명상
기물 파손했시	배상하기
수행평가때 부정행위했시	도덕성 쓰기
선생님에게 거짓말했시	
선생님/친구에게 예의없게 행동하지 않기	도덕성 쓰기
싸우지 않기	악수 상태 유지
교실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그날 자기 자리 청소
점심 식사 줄 세치기하기, 뛰기	맨 뒤로 가기

서명:

6



④ 1인1역

우리 반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반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주어, 학생들이 겉돌지 않고 학급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데는 1인1역만 한 것이 없다. 학생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급의 일에 직접 참여해 반을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담임과 반 친구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된다.

⑤ 학급 규칙

학급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담임 재량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 일관적이기 힘들 때가 많다. 담임의 그날그날의 컨디션, 감정, 또 특정 학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반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반 학생들과 같이 정리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겼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면 좋을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다면, 담임은 학생들과 협의해서 정한 학급 규칙의 집행자로서 학생들을 공평하게 지도할 수 있게 된다.

⑥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는 미리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교육해서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학생들의 인식 속에 심어줘야 한다. 막연하게 '학교폭력은 나쁜 거야' 보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책임을 져야 해'라고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른다고 한탄 말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

“새 학기, 흔들림 없는 학사운영을 준비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난 2월 18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2~3배 높고 무증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배종이 되면서 전체적인 방역체계를 전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검사지원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먼저, 학교방역을 ①개학 전 준비 ②등교 직전 조치 ③등교 후 관리 3단계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결손을 비롯해 심리·정서, 사회성 결핍 등 그동안 교육회복에 집중해온 교육부는 학교방역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대면수업·교육활동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서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교육회복과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노력 등을 살펴본다.

학사운영의 형태 (알아두기)

24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이렇게 달라집니다
26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학교별로 학사운영 유형 결정
29 세심한 관찰로 ‘느린학습자’의 눈높이 찾기
32 전국 ‘과밀학급 해소’ 특명… 해법 찾기 나선다



서울흥인초등학교 선생님이 등교하는 한 학생을 맞이하고 있다.

글 _ 편집실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 감염률이 매우 높음(1월 5주차 점유율 93.1%로 우세종화)
-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음
- 중증화율은 0.45%(델타형 1.4%), 치명률은 0.22%(델타형 0.7%)로 낮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치명률이 다소 낮은 특성을 보임(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연일 경신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월 4일 기준으로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은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단계이며,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방역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교육부는 먼저, 방역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등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교내에서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학교방역 인력을 전년도보다 확대하여 7만 명을 배치하는 한편, 학교 구성원의 백신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격리를 했다면, 새 학기부터는 신속항원검사 2회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감염확산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단'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한다.

지역·학교 중심의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 도입

교육부는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에 따르면,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한다. 이때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음성의 경우 등교할 수 있다.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 가능하다.

교육부는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464억의 예산을 들여 전국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 2월 넷째 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4개씩 지원한다. 그 밖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위한 비축분으로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한다.

학생·교직원 등교 전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

교육부는 새 학기 학생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3월 2주차부터는 매주 2회(일요일, 수요일) 검사를 권고하고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소를 설치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추가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전국 204개 팀)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표 -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사항(초·중등)

주요항목	현행	개정(신설·강화)
코로나19 정보 확대	코로나19 기본 정보 제공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정보 제공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방역수칙 교육자료 등
마스크 착용 기준 강화	보건용, 면마스크, 비말차단용 등 자율 착용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고
업무공백 예방	학교별 감염예방 방역관리 조직 구성·운영	다수 교직원 격리에 대비하여 「학교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제시 ※ 보건교사·급식종사자 격리 시 비상대책안, 코로나19 관리자·담당자 동선 분리 등
자가진단 항목 보완	코로나19 임상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 신설, 오미크론 정보 추가, 문항 가독성 개선
등교·출근 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반영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등교·출근 기준 설정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등교 기준 보완 ※ 동거가족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동거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등교 가능하나 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선제검사 도입	-	학생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 이용 선제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 대응체계 변경 ※ 방역당국 방역체계 변화 반영	방역당국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체계 전환에 맞추어 학교 자체조사 접촉자 후속조치 체계 마련 밀접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선별진료소 / 그 외: 7일간 신속항원 검사 3회 이상, 자가,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등교제한: 각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현장 PCR 진단검사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현장 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 도입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에서 시행)
환기 강화	수업 전·후 수시 환기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취약시설 보완	교실, 급식실, 기숙사 등 관리기준 제시	취약시설(급식실, 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개인별 또는 학급별 등)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양치실: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글 _ 편집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학교별로 학사운영 유형 결정

새 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난 2월 18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2~3배 높고 무증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배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자·격리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초유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학기 학사운영은 어떻게 이뤄질까?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 대해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 등교 + 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의 4가지 학사운영 유형을 제시하였다. 방역상황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결정권을 열어두었다. 교육부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단기간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의 판단을 중시해서 학사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표 1 - 학사운영 유형

주요항목	개정(신설·강화)
① 정상교육활동	전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②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전 학생이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③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해 일부 학생은 등교하고, 일부 학생은 원격수업 실시
④ 전면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수업 공백 없도록 기간제 교원 1만여 명 투입

한편,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를 핵심지표로 제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밀집도 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 교직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교직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에 해당하는 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뿐 아니라 임용대기자 등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확대 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자 급증에 대비하여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하였다.

표 2 - 공공 LMS 서버용량 증설 계획(동시접속자 수 기준)

서버 용량	'22.1월(동계방학)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대비	
	LMS	화상	LMS	화상
e학습터(KERIS)	50만 명	10만 명	120만 명	30만 명
온라인 클래스(EBS)	10만 명	5만 명	75만 명	30만 명
계	60만 명	15만 명	195만 명	60만 명

※ 예상되는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여유분 확보

그 밖에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업무연속성계획'을 통해 핵심업무 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출근이 불가한 교사의 근무 형태 및 대체수업, 등교중지 학생 대상 대체학습과 돌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비하였다.

표 3 - 교육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주요 내용

핵심 내용

- 핵심업무 및 업무별 우선순위 정의
- BCP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 및 방역자원 확보
- 전 교직원 비상근무 체계 및 필요 시 외부인력 지원방안
- 코로나19 관련 출근이 불가한 교원의 근무 형태 및 원격수업 여부·방식
- 확진 교직원 발생 시 해당 학급·교과 수업 및 운영방안
- 격리 학생 대체학습 제공 방안, 돌봄 인력 격리·확진 시 돌봄 운영방안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사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학습 제공 시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로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태블릿에 웹캠을 연결하여 교실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 이외에도 콘텐츠를 활용한 쌍방향 수업, 과제 중심의 쌍방향 수업 등의 대체수업이 가능하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 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육부는 심리·정서 등 정신건강 회복이 학습결손 해소의 선제 조건이라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내에서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등에 도움이 되는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4 - 등교중지 규모에 따른 학사운영

등교수업	개인 단위 등교중지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 - 단위학교의 '원격수업 운영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 규정
	학년·학급 단위 등교중지	•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사운영** - (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 (일과 중 상황발생 시) 다음 날부터
원격수업		• 등교중지 대상 학생 유무에 관계없이 **원격수업 정상운영**

대학, 실험·실습 위주 수업 대면교육 원칙

한편, 교육부는 대학 분야에서도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회복을 위해 학사운영 전반에 대면교육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실험·실습 등 대면활동이 전제되는 교육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 취업 준비, 학생회 활동과 학생적응 프로그램 등 대학생들의 교류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서·사회성 회복도 지원한다.

글 _ 이지선 해남서초등학교 교사

세심한 관찰로 '느린학습자'의 눈높이 찾기

2020년 3월의 코로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가혹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인 나에게만 더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함께 고민할 동료를 찾으려 두리번거렸던 기억이 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에 맞서 학생들을 지키고, 낯선 방역체계에 맞추어 재사회화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년간 학교의 구성원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느라 무척 애를 썼다. 코로나 시기의 교수·학습 상황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단으로 교사들의 등을 떠밀었다. 이러한 낯선 교수 환경을 견디어 내며 학생을 지도하기는 쉽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어려움과 방역 지원의 고됨을 극복하며 학생들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증가가 눈에 띌 정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진 학생의 증가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 방법이 딱히 없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시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배움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특히 저학년 학생의 경우 혼자서 온라인 기기를 다룰 수 없거나 학교에서 배부하는 학습 꾸러미를 자신의 배움으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했다. 중·고학년의 학생들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 학습에서의 방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함께하는 정규 수업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진 학생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커졌다. 문제는 교사가 학생을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긴급돌봄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중 학습이 걱정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 개별화 지도를 해나갔다. 중·고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일대일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의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교사의 관심과 돌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일선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마침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전남교육청이 2020학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 지원 학생을

66
느린학습자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학생의 현재 눈높이를 찾아 머물러야 한다.
99

교육부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의 방과 후·방학 중 교과보충(특교 3,200억 원)과 함께 교·사대생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국고 1,050억 원)하는 등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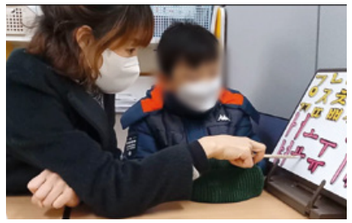
느린학습자의 눈높이를 찾아내는 과정

구제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1명 이상의 초등 정규교사 총 4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정규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정당한 수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아웃 방식의 학생지도가 가능하다. 풀아웃 방식은 방과 후 수업시간을 이용한 보충지도가 아니라, 정규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별도의 장소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다. 정규교사가 지도함으로써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감과 안정감, 전문성 등이 담보될 수 있기에 학습의 효과는 매우 뛰어났다.

한 반에 보통 두세 명씩은 있는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를 담임교사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장, 교감 선생님과 반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없어 여력이 되는 선생님들 모두가 지도를 맡아줄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지도가 매우 힘든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도한다. 코로나로 인해 학급 담임의 역할은 학습지도는 기본이고 학생 방역을 위한 너무나도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지도에 열정을 쏟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부분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로 메꾸어줄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대부분은 느린학습자 학생들이다. 느린학습자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학생의 현재 눈높이를 찾아 머물러야 한다. 학생의 눈높이 찾기는 학생의 현재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나 느린학습자 학생들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학습의 효과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학습 내용 제공으로 또다시 실패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학생의 눈높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 지도하는 내내 학생과 교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눈높이를 찾아내기 위한 학생 이해의 과정은 지극히 어렵다.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살펴야 하며 이와 함께 가정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학부모교육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학생과의 대화였다. 수업시간을 쪼개 진심으로 학생을 존중하며 했었던 대화들은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을 열정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느린학습자 학생들은 특성상 학습의 효과가 매우 저조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지치기 마련인데,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뜨거운 열정이 지치지 않고 학생지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무한 반복과 시행착오 속 문해력 키우기

어느덧 학교는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하는 세 번째 입학생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선생님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 앞서가는 선생님들은 효과적인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 툴을 만들어 동료 교사와 나누기도 한다. 여기에 느리게 배우는 학생에 대한 배려도 함께 있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러한 노력이 느린학습자의 지도를 낙인효과로 여겨 공교육을 불신했던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 정말 가르칠 맛이 난다.

새 학기에 혹시라도 내가 만날 아이 중에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있다면 또다시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다. 내가 지도했던 느린학습자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스승들이었다. 끊임없이 교사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전문성을 닦도록 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무수히 많은 반복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꼬마 스승들이 문해력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선 선생님은 전남 해남서초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느린학습자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19년 <기초부터 차근차근 놀이로 배우는 한글> 자료 제작, 2020년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파견 근무, 2021년 목포지역 기초학력 전담교사 및 전남도 내 1~2학년 담임교사 문해력 연수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글 _ 양지선 기자

전국 '과밀학급 해소' 특명… 해법 찾기 나선다

좁은 교실 안에 학생들이 빽빽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이런 과밀학급을 보긴 어려워졌지만,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각각 1.9명, 2.8명이 많았다. 코로나19로 학교 밀집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돼왔다. 특히 30명 전후의 과밀학급에서는 교실 안에서 충분한 거리두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감염에 대한 우려도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건 안전 유지뿐 아니라 교사들의 학습지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교사 1인당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맞춤형 교육은 힘들어지고, 학습격차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 439개 학급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했다. 특히 경기도는 과밀학급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은 11.6%였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1만 8,232학급으로 전체 8.4%를 차지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과밀학급 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한 학교를 전체 56.6%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70.1%, 2024년에는 9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각 시도에서도 모듈러 교실 이용,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교사 증축, 학구제 시행 등을 내세웠다.

표 1 - 모듈러 교실 vs 컨테이너 교실

	모듈러 교실	컨테이너 교실
주요 차이점	모듈러 공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된 보-기둥식 철강구조 건물	화물용 컨테이너 박스 개량 건물
특징	• 내진, 내화 성능 확보 • 콘크리트 바닥 적용으로 진동, 울림에 유리 • 모듈 결합방식에 따라 공간크기 다양화 • 설치목적 및 존치기간에 따라 가설건축물(한시적)과 일반건축물(영구) 모두 가능	• 내진, 내화 곤란 • 합판바닥 적용으로 진동, 울림에 취약 • 철판벽체로 인해 공간크기 제약 • 가설건축물로 설치

66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과밀학급 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듈러 교실 이용,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교사 증축, 학구제 시행 등을 내세웠다.
99

무엇인지만 이해

모듈러 교실, 과밀학급 해결책으로

교육부가 우선 과밀학급 해결책으로 찾은 건 모듈러 교실이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갖춘 건물을 완성한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하는 교실이다. 흔히 컨테이너 교실로 인식해 학부모들은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모듈러 교실은 철강구조 건물로 내진, 소방, 단열 등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설치와 해체가 쉬워 학교 증축 기간 임시교실로, 혹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은 줄이고 철거 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6일 조달청, 소방청과 함께 이동식 모듈러 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듈러 생산업체가 적고, 비용도 큰 탓에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는 선뜻 구매 의사를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을 통한 임대 서비스를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모듈러 교실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모듈러 교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염려도 해소하게 됐다.

안산해솔초, 모듈러 교실로 학급당 인원수 27명대 감소

전교생 2,000명이 넘는 안산해솔초등학교(교장 김동목)도 올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됐다. 내년 2월 학교 증축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3학년 학생들이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설치가 완료됐다.

2020년 개교한 안산해솔초등학교는 첫해 24학급으로 시작해 작년 66학급, 올해 74학급까지 늘었다. 학생 수 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안산시 상록구



1 안산해솔초 모듈러 교실 내부 복도
2 가로로 긴 형태의 내부 교실
3 모듈러 교실 외관

사동에 있는 학교는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규 입주하는 가구의 학생들을 받기 위해 설립됐으나, 예상보다 50%가 더 넘는 학생들이 오게 됐다. 본래 48학급 기준으로 설계됐던 학교는 과학실 두 곳과 컴퓨터실 한 곳을 제외하고 특별실을 모두 일반 교실로 탈바꿈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듈러 교실은 좋은 대안이 됐다. 작년 기준으로 학급당 인원은 평균 28명이 넘었고, 4학년 중에는 30명이 넘는 학급도 있었다. 올해는 모듈러 교실 덕분에 27명대로 감소했다.

본관 앞 운동장 한쪽에 자리 잡은 모듈러 교실은 1층 6개, 2층 6개 등 총 12개 교실과 교사연구실 1곳으로 구성돼있다. 남녀학생용 화장실도 각각 마련돼있다. 설치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됐으며, 일반 교실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 실제 둘러본 공간은 일반 교실과의 차이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김동목 교장은 "모듈러 교실을 컨테이너 교실로 오인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설치 후 이틀간 학부모를 초대해 직접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을 둘러보도록 했다. 실제로 방문해보시고는 그런 우려가 많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오히려 새 건물이고 특별해 보인다며 모듈러 교실에서 생활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증축공사 중 임시교실로 활용해 학습권 침해 줄여

안산해솔초는 내년에도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는 현재 모듈러 교실과 동일하게 12개 교실을 본관과 연결되도록 증축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학급 당 인원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동목 교장은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라면 굳이 증축을 선택하는 것보다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본다. 우리 학교는 올해 1년만 사용하도록 계약된 건데, 가능하다면 계속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튼튼하고 만족스럽다. 만약 모듈러 교실이 없었으면 학급당 인원이 34명은 됐을 텐데, 아이들 생활지도 상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학교의 걱정은 교실 증축이 완료되기 전에 모듈러 교실이 먼저 철거되는 상황이다. 교실 증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내년도 2월 28일인데, 조금이라도 공사가 늦어질 경우 개학일에 맞춰 교실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은 모듈러 교실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동시에 모듈러 교실이 일반 교실 이외의 활용도가 제한적인 점을 지적했다. 김 교장은 이어 "모듈러 교실 임대료가 연간 6~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무리가 없다면 필요한 곳에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모듈러 교실을 과학실 같은 특별실로 활용하려면 구멍을 뚫고 수도 배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임대가 끝나면 그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 측이 난감해하더라. 일반 교실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현재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 가운데 일반건축물로 등록해 영구교실로 사용하는 곳은 경북 포항송곡초등학교 한 곳이다. 대부분 공사 중 임시 교사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기한은 짧게는 3개월부터 3년에 이르며, 그 이상 활용할 경우 포항송곡초와 같이 영구교실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2 - 과밀학급 관련 시도교육청별 현황 및 계획

전체 과밀학급 수 (2020)합계 40,439

시도 교육청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 수(개) (2020)				향후 추진 계획
	초	중	고	계	
서울	1,987	1,531	1,182	4,700(11.6%)	• 초1 학급 20명 이하로 단계적 확대 • 초·중·고 239교 4,504학급 과밀 해소
부산	675	454	172	1,301(3.2%)	• 1,043억 투자해 초·중·고 30개 학교에 교실 재배치, 교사 증축, 모듈러(조립식) 교실 설치 등 추진 • 올해 온샘초·오션중 개교 / 내년 명지5초 설립
대구	590	596	144	1,330(3.3%)	• '25년까지 일반교실 381실 증축 • 공동 통학구역 제도 활용해 인근 소규모 학교로 통학 가능
인천	400	1,267	330	1,997(4.9%)	• 26개교 신설, 300개 이상 교실 증축
광주	210	236	358	804(2.0%)	• 중학교 전체 과밀학급 중 86학급 해소, 30명 이상 과밀학급 73학급 감소
대전	226	550	164	940(2.3%)	•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 총 26개교 91학급 증설
울산	128	295	91	514(1.3%)	• 올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 • '24년까지 전체 학교 과밀학급 전면 해소
세종	-	-	-	-	• 올해 초1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0명 이하 조정 • 53개 학급 증설, 교과전담교사 담임 전환
경기	6,893	8,043	2,545	17,481(43.2%)	• 정원외 기간제교사 학교 배치 • 신도시 개발 대비 학교 신설 박차
강원	121	299	127	547(1.4%)	• 초1 학급 정원 20명 이하 비율 45.7%→67.5% 확대 • 초1 학급 46개 증설, 기간제 교원 50명 선발
충북	192	497	321	1,010(2.5%)	• 청주지역 학급당 정원 감축 위해 학급, 학교 신설 추진
충남	1,084	1,131	644	2,859(7.1%)	• 모든 초1 학급 당 학생 수 24명 이하로 편성 • 초 172개·중 54개 학급 증설
전북	283	681	376	1,340(3.3%)	• '24년 전주 에코시티 내 전라중, 완주 삼봉지구 내 삼례동초 개교
전남	485	607	46	1,138(2.8%)	•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 • 학급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등 한시적 정원 외 추가 임용
경북	1,001	88	84	1,173(2.9%)	• '26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 비율 95% 목표 • 읍·면 지역 초1 학급당 학생 수 26명→24명 축소
경남	449	1,102	652	2,203(5.4%)	• 진주·김해·거제 등 19개 중학교 광역 학구제 시행으로 학생 분산 • 올해 200명 동 지역→면 지역으로 진학
제주	479	357	266	1,102(2.7%)	• 올해 도내 초등학교서 3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 중학교는 15학급 늘어나 과밀학급 비율 20%대로 감소

코로나우울 심리회복·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글_편집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의 치료에 500만 원과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에 6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에 보완적 의료비 지급

접종 당시 만18세 이하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 원 지원된다.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현재 국내 13~18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2월 11일 기준 2차 접종률은 77%다. 1월 18일 기준 이 연령대에서 접종한 1, 2차 전체 406만 3,18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 182건(0.27%)이다. 이 중 사망 1건을 포함해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들은 성장기이므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신체적, 그리고 학습권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많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백신접종 대상이 5~11세로 확대된다면 지원범위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접종 이상반응'이 더 궁금하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https://ncv.kdca.go.kr/)에 접속하면 예방접종 현황과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12~18세 예방접종의 안전성 여부, 이상반응 Q&A, 국가보상체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혹은 심근염·신낭염 등에 관련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확인할 수 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심리회복에 600만 원 지원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심리,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데 올 한해 예산 3,600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정신건강 고위험군인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과, 상해 치료 포함 치료비 각각 최대 300만 원, 총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은 8만 명(4.6%)이었으며 이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3만 명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으로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완치 학생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학생이 원할 경우 각 시도교육청별 거점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학교로 지원한다. 또한, 365일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서비스 다 들어줄 개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 들어줄 개'가 더 궁금하다면…

다 들어줄 개는 365일, 24시간 청소년 모바일상담을 하는 전용어플이다. 문자(1661-5004)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형식의 상담을 통해 교우관계, 가족문제, 심리문제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고민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 힘든 일이 있다면 '다 들어줄 개' 상담실 문을 두드려보자.



>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의 치료에 500만 원과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에 6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의료비 지원 Q & A



※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Q1. 중증 이상반응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A.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부담한 경우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을 때 만18세 이하 학생으로,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국가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Q3. 접종 이후 90일 내로 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A.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래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길랑-바래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 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으로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최장 잠복기로 알려져 있다.

Q4. 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A.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이다.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하여,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액 간병비는 입원 진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1인당 5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Q5. 백신 이상반응 500만 원, 정신건강 3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A.

백신 이상반응은 질병관리청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 경우 심리지원, 신체상해 지원, 자살·자해 학생 지원은 각각 300만 원으로, 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의 협약사항을 따른 것이다. 정신과 치료비에는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이런 각종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신체상해 치료비는 골절이나 음독 치료, 응급실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를 보면 지금 600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는데, 재원이 한정돼서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Q6. 지난해 백신접종 한 고3 학생 중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 대상이 접종 당시에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므로, 2021년도에 백신접종 했던 고등학교 3학년(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Q7.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신청도 여러 번 할 수 있나?

A.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진료를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된다.

Q8. 국가보상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

A.

교육부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지는 등 명확하게 접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Q9.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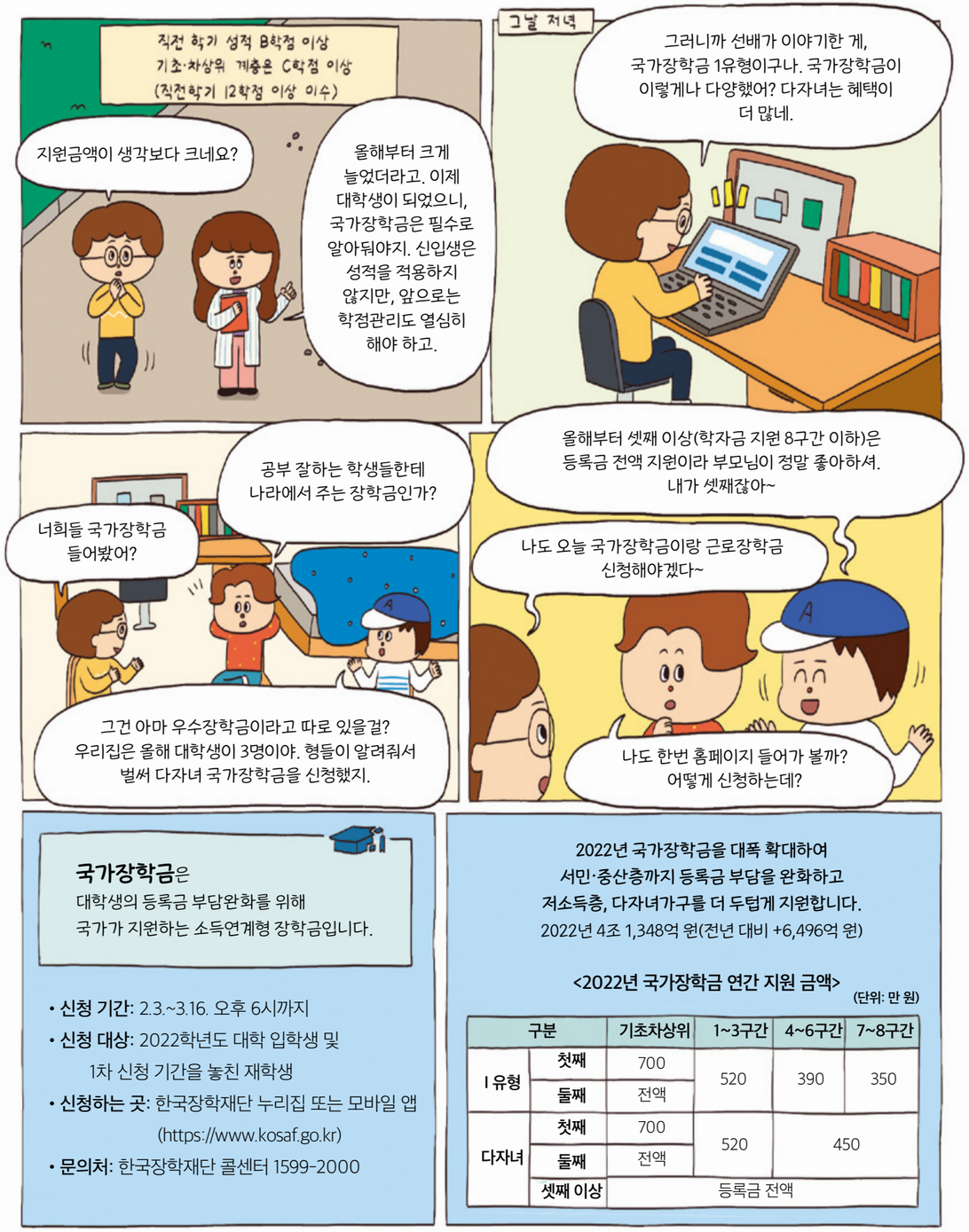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부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2월부터 사업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이미 국가 보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 5월까지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 **신청 기간**: 2.3.~3.16. 오후 6시까지
- **신청 대상**: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 및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https://www.kosaf.go.kr)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22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2년 4조 1,348억 원(전년 대비 +6,496억 원)

<2022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I 유형	첫째	700	520	390	350
	둘째	전액			
다자녀	첫째	700	520	450	
	둘째	전액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경기도교육청

한발 앞서가는 고교학점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먼저 올해 도내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마련한 5개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을 올해부터 현장에 전면 적용한다. 경기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글 _ 양지선 기자

고교학점제는 현재 교육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의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왔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도내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의 고교학점제 협력 운영 체계가 구축됐다. 그동안은 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과 내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타 부서와 협업하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경기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운영에 따라 도교육청 내 담당 부서들이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됐다.

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 체제로 업무가 재구조화된다. 교육과정, 진로진학, 교무행정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지구로 지역 협력체계 갖춰

올해부터는 전체 25개 교육지원청이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지구로 묶이면서 지역별 교육과정 지원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마을캠퍼스는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단위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도심형과 농촌형 학교의 선결과제가 다르며, 어떤 학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초점을, 어떤 지역은 교·강사 인력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기도 한다. 각 지역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학교 밖 학습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마을캠퍼스는 올해 지역 대학 16곳과 협약을 맺고 교원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에 맞춰 교원은 다과목 지도를 위한 연수를 들을 수 있다.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유연한 교원 활용

도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추진단 협의와 포럼 등을 통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크게 교육과정, 교원 인사·역량, 진로교육, 시설·공간, 학교 밖 학점화·홍보 등 5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꾸려왔다. 그중 교원 지원과 관련해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로, 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정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교과순회전담교사는 말 그대로 여러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수강 인원이 적어 개별 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을 때, 교사 1명이 2~3개 학교의 수업을 담당해 강의할 수 있다. 지난해 27명에서 올해 91명으로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교에도 교과순회전담교사를 배치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교원 정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소인수 학생 대상 밀착 지원을 위한 분반담임제를 확대하고,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 교원의 활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대학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학, 심리학, 철학, 정보컴퓨터, 디자인 등 5개 교과목의 부전공 연수 540시간을 진행했다. 올해는 전공과목 개설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학점제 맞춤 학교 공간조성 추진

학점제형 공간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단순히 낡은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실, 홈베이스 등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교 485개교 중 희망학교 244곳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학교 공간개선 우수사례로 꼽히는 위례한빛고등학교는 다인수·소인수 과목 등 인원에 맞는 학습공간을 나눠 구축하고,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실과 쉼터, 휴게공간을 다양하게 구성

했다. 백영고등학교는 교과 수업의 특색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공간으로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학점제형 공간지원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해 학교별 맞춤형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해 책임교육 운영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그만큼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책임교육이 강조된다. 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도달 예방 지도가 중요한 이유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앞서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를 시행하도록 안내와 연수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선택과목으로 교과 이수 기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희는 지난 2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연구 추진,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교사 연수 관련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표 - 2022년 경기 고교학점제 주요 추진 계획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주요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주요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 진로 학업 설계	•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 자기주도적 진로·학업설계 지원 • 지역과 연계한 진로교육	1 교원 지원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배치 효율화 방안 모색
2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보장	•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 학교-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 학교 밖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2 교원역량 강화	• 다양한 교과 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지원 •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 자율성 기반 교과연구회 지원
3 책임교육 체제 구축	• 학점제형 책임교육 운영 • 교과별 책임교육 체제 구축	3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 학점제형 공간조성 연차적 지원 • 경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지원
		4 지역중심 협력체계강화	•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지구 운영 • 혁신교육지구 연계 운영 • 홍보 강화

FOCUS 01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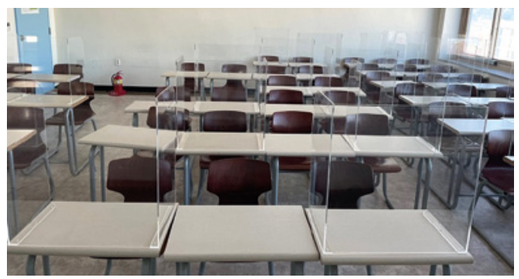
글 _ 최주현 명예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대학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대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했고, 원격수업을 활용해 군복무 중에도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각 대학교의 전체 강좌 대비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의 전체 강좌 중 대면은 25.2%, 혼합 30.2%, 비대면 44.6% 수준이었다. 이 중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45%, 이론·통합 수업은 대면 18.6%를 나타내며 사실상 수업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의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대면수업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맞춰 학사운영방안을 기획하던 대학에서 갑자기 비대면 수업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발생했다. 웹캠과 핀마이크가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거나 일시적으로 품절대란을 겪기도 했고, 비대면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줌(Zoom)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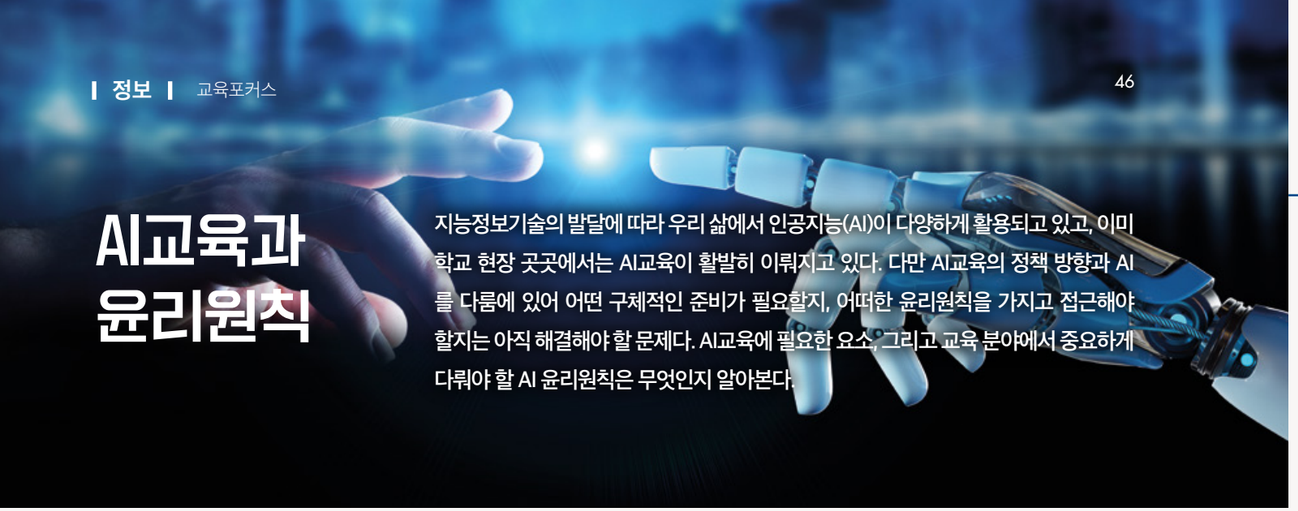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비대면 수업 제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을 지원했다. 지난해 총 418억 5,2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3,000명 규모를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을 우선 선발해 교원의 수업 혁신을 위한 원격수업 모형 연구 개발, 수업 콘텐츠 제작, 원격수업 운영 및 대학교육개발센터(CTL) 지원 업무에 투입했다. 이렇게 투입된 인원들은 비대면 수업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점차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실제, 대학교에서는 강의실 칸막이 설치 및 수업시간표에 따른 방역 계획을 수립해 대면수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대학 방역의 경우, 학기 초 한 달간 교육부·대학·지자체 합동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해 기숙사, 식당 등 감염이 취약한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기숙사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신규 입소생 대상 선제검사 실시,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숙사 내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대학 간 PC방, 유흥시설 등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 합동 점검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에는 대면수업 원칙을 본격 시행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22학년도 1학기. 대학가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AI교육과 윤리원칙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 삶에서 인공지능(AI)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미 학교 현장 곳곳에서는 AI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AI교육의 정책 방향과 AI를 다룸에 있어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지, 어떠한 윤리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다. AI교육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AI 윤리원칙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FOCUS 01

미래교육으로서, AI교육 무엇이 필요할까?

글 _ 반창모 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지 벌써 6년이 흘렀다. 인간이 바둑에 패배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개발자인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의 배경에 대해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사비스는 도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이런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을까? 바둑처럼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태어난 하사비스는 어린 시절부터 체스를 배웠다. 그는 이미 8살 때 U-8 런던 대회 챔피언이 되었다. 독특한 점은 대회 상금을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였고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게임 제작사에 입사하여 학업과 개발을 병행하였다.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뿐 아니라 뇌와 인지과학을 연구하며 알게 된 동료들과 딥마인드를 창업하게 된다.

AI교육의 핵심 요소

이러한 하사비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바야흐로 2025년 정규교육과정으로 AI교육 도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새로운 퀀텀 점프(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를 준비하고 있다.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올바른 주춧돌이 놓여야 할 것이다. 새롭게 나아갈 AI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첫째, AI교육에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다. 인문이란 인간과 삶에 대한 탐구이다. 모든 학생에게 AI를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가 학생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AI, 특히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주로 '예측과 분류'이다. 이러한 예측과 분류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윤리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AI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AI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 문제는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인재, 즉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와 수학적 이해가 수반된 AI교육이어야 한다. 오늘날 AI가 각광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머신러닝의 발전 때문이다.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기존과 좀 달라지게 되었다. 코딩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모델의 성능이 괜찮은지 평가를 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결국, 데이터로 문제를 바라보는 힘과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AI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AI에 대한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는 아이들이 영화에 나오는 초인공지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학습한다'는 표현이 주는 느낌 때문에 머신러닝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머신러닝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철저하게 수학적 반복에 의한 것이지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머신러닝이 어디에 써야 적합한지, 한계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AI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바람직한 AI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교원들의 AI교육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렇다면 현장에 필요한 정부의 교육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질 높은' 교원 연수의 지원이다. AI 담당 교원 연수를 단순히 양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겨우 30시간 남짓 연수를 이수하면 핵심 교원이 되는, 스마트교육과 SW교육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는 일반 교원의 AI에 대한 반발심을 키울 수 있으며, 자칫 전체적인 AI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안으로 개선된 마스터 티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고의 전문적 실력을 가진 교사를 선발하여 지역의 멘토링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 연수와의 차이점은 일회성 연수가 아닌 1년에 수차례 교류를 통해 노하우와 암묵지를 배운다는 것이다. 특히, 최고의 교사가 가진 암묵지가 중요한데, 단발성 수업 공개와 연수로는 결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계 속에서 우수 교원을 양성하며, 그러한 교원이 AI교육 연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 연수에 대해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중시해야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I교육을 위한 올바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AI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일까? 극단적으로 노트북만 있으면 거의 모든 AI교육이 가능하다. 현장에는 태블릿은 넘쳐나지만 노트북은 찾아보기 힘들다. 태블릿은 GPU 성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코딩과 데이터 분석, 가공에 적합하지 않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한 학급 분량의 노트북 구입이 불가능하여 교육청 지원으로만 가능한데, 노트북은 지원 항목에 제외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안으로는 교육청 단위에서 AI에 대한 이해가 있는 내부 전담팀을 양성하여 행정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AI교육 예산 운영을 도와주는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 점차 확대될 AI교육 예산이 학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문화 전문 잡지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 케빈 캘리가 말했듯, 앞으로 새롭게 생길 신사업은 X에 AI만 붙이면 된다고 한다. 모든 분야에 AI가 연결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육 분야에 AI가 도입되는 건 당연하다. 학생들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AI교육을 준비하는 지금, 올바른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교육에 대한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있다면, 학생들의 미래에 밝은 길을 비추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FOCUS 02

윤리적인 인공지능

글 _ 김현철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학습된다

'인공+지능'에서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인위적으로 흉내 내어 만든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6년의 미국의 어느 학회에서인데, 1950년 전후는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 컴퓨터에서 사용될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던 시기이다. 몇몇 학자들이 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하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문적 논의를 하고, 이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먼저,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것의 형식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지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나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줄 아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길이 저 길로 가는 것보다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나의 두뇌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종이 위에다가 규칙, 공식, 혹은 알고리즘 등 어떤 형태로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정의하고 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였는데, 문제해결, 논리적 추론, 학습, 인식 등과 같은 것이 그중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어떻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의 여러 영역 중에서 인간의 '학습' 과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흉내 내는 연구개발이 최근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양인과 동양인의 얼굴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서양인과 동양인에 대한 아주 많은, 좋은 품질의 사진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으로 훈련(즉, 학습)시킨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시킨 대로 완전히 새로운 사진을 보여줘도 그것을 우리 인간처럼 잘 구분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자. 엄청나게 많은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을 인공지능에게 잘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중급 인간 수준의 번역을 하게 된다. 더 많은 문장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훈련 시켜 나가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 훌륭한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얼굴 구분이나 언어 번역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낸 데이터이며,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인간의 판단과 행위를 흉내 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거나 편향되었다면 그것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인간도 사실 그러하다.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사용하게 된다. 만약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편향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편향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성별과 인종에서 더욱 뚜렷하다.

2017년에 여러 기업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1], 백인 남자에 대한 인식률은 거의 100%에 달하였지만,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에 이어, 흑인 여성의 경우는 65% 내외의 인식률을 보였다. 이것은 데이터의 부족, 불균형에 의한 결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어떤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그 은행의 과거 대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되었다고 하자. 그 과거 데이터는 성별과 인종에 의해 불균형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에 의한 편향과 편견을 학습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특정한 성별/인종은 예상하지 못한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례를 주변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에 기업에서 인공지능 면접관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많은 지원자를 모두 자세히 면접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인공지능이 대신 면접을 통하여 말투, 표정, 이력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면접관도 이 회사의 과거 선발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과거 5년, 10년 전의 데이터일 것이고, 우리는 올해부터 일할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10년 전과 현재는 많은 문화적 차이도 있으며, 사회 환경도 바뀌었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회사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도 달라졌을 텐데, 10년 전의 데이터로 훈련시킨 면접관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더 심각하게는 10년 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편향, 편견, 불공정, 비윤리적 가치가 되살아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가지게 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 인간의 경험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원서에 본적과 출신 지역을 적지 않도록 했고, 더 나아가 성별과 키/몸무게, 부모의 직업도 적지 않도록 했으며, 이제는 사진과 학력, 나이도 적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항목들은 편향되어 있어 단지 그것에 의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1 출처: http://gendershades.org/overview.html

윤리적인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매개로 하여 인간을 흉내 낸다. 따라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또한 인공지능도 그대로 흉내 내어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의 윤리적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신뢰성이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성능이 대략 95% 정도라고 해보자. 다시 말하면 5%는 틀릴 수 있다. 우리 인간도, 인간지능도 그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편향성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되는데, 그 인간의 데이터가 편향과 편견과 차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회가 그러한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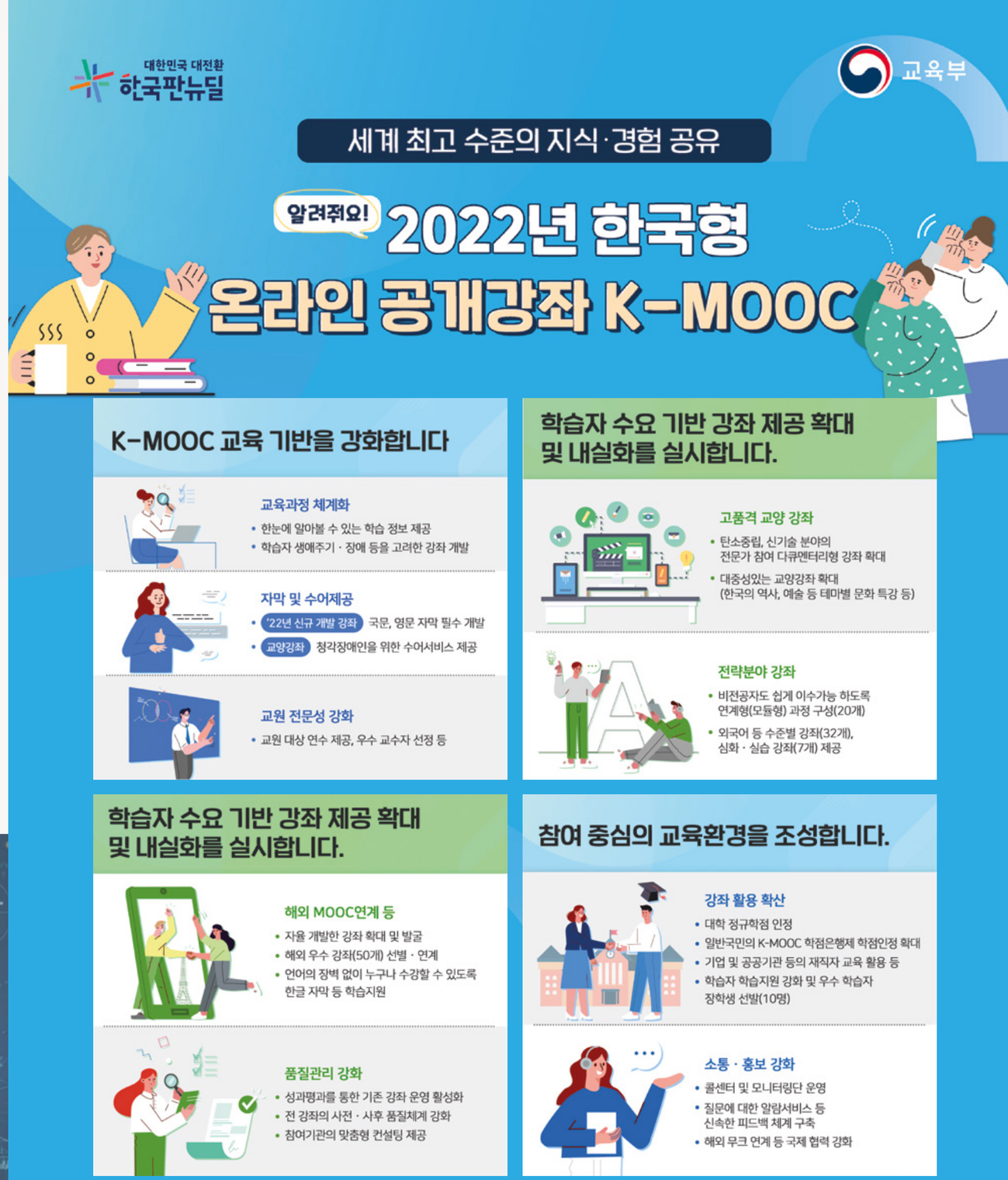
셋째, 책임성이다.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 인간과 같은 법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만약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이다.

넷째, 악용 가능성이다.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윤리문제에 속한다.

인공지능의 윤리는 설계와 개발자의 관점에서, 혹은 도입자의 관점에서, 혹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낸 데이터로 인공지능은 학습한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편향되었다면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
박소영 코햄체 대표

버려진 웨딩드레스의 화려한 변신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더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상 속에서도 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이왕이면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을 소비하려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만은 않다. 박소영 코햄체 대표는 몇 번 입지 못하고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업사이클링해 가방, 파우치, 귀걸이, 머리끈 등 패션 액세서리로 만들어 판매한다. 그를 만나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_양지선 기자

웨딩드레스는 그 어느 옷보다도 화려하고 비싸지만, 그에 비해 수명은 너무나 짧다. 평균 4번 입으면 버려지는데, 이렇게 연간 170만 벌이 '비싸고 예쁜 쓰레기'로 전락한다.

박소영 대표는 이처럼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실크, 폴리에스터, 레이스, 비즈 등 여러 소재로 구성된 드레스의 원단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각 원단의 특성을 살려 가방, 귀걸이 등 패션 액세서리로 만들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웨딩드레스에서 비롯된 우아함은 그대로 남았다.

코햄체란 폴란드어로 사랑한다는 말을 뜻하는 '코함치엥(Kocham Cię)'에서 따온 이름으로, 사랑이 결실을 보는 날 입는 웨딩드레스의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최근에는 웨딩드레스에 이어 해녀복 업사이클링으로 상품 라인을 더욱 늘렸다. 해녀복의 탄탄한 고무 소재를 활용한 물병 파우치, 멍게를 캐릭터화한 열쇠고리 등이다.

박소영 대표는 계명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시작된 코햄체를 5년째 이끌고 있다. 학부생에서 이제 어엿한 브랜드 CEO로 성장한 그는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라는 길을 새롭게 개척해왔다. 이제는 코햄체가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시장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길 꿈꾸고 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연히 뉴스를 통해 버려지는 웨딩드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예쁜 옷들이



1



2

1 지난해 12월 K-핸드메이드페어의 코햄체 부스

2 코햄체는 지난해 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열린 에코페어에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참여했다.

결국 쓰레기가 된다는 게 너무 아까웠다. 웨딩드레스를 활용해 새로운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웨딩드레스는 실크, 폴리에스터 등 여러 합성섬유로 이뤄져 있고, 드레스의 치마라인을 풍성하게 해주는 튤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도 사용된다. 이런 소재가 땅속에 묻으면 200년이나 썩지 않는다고 한다. 소재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 재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도전해보고 싶었다.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주목받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4학년 2학기 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웨딩드레스를 구하기부터 쉽지 않았다. 다행히 창업 수업 교수님께서 마침 전직 웨딩플래너로 일을 하셔서 여러 업체를 소개해 주셨고, 웨딩숍을 운영하는 졸업생 선배님들도 흔쾌히 연락을 주셨다. 이제는 업체들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한다. 웨딩숍이 폐업할 땐 드레스뿐 아니라 커튼, 남성 예복까지 쓸만한 건 모조리 가져온다(웃음).

학교 밖에서 배운 점들도 많다.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업사이클 관련 강연도 전국을 따라다니며 들었다. 업사이클링 업체들도 직접 찾아가 만나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배웠다.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 활동은?

학창 시절에 박물관을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다. 역사, 미술,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시를 보러 다니고 책도 많이 읽었다. 무엇이든 많이 보고, 많이 체험했다. 그런 경험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중3 때 특히 진로 고민이 많았는데, 미술 선생님, 미술 작가, 디자이너 등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께 연락해 조언을 들은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 그때 치열하게 고민한 덕분인지 지금도 나의 일과 진로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다.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주도 해녀분들을 무작정 찾아가 버려지는 해녀복을 구해오던 게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한창 일하는데 바쁠 때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라며 타박하셨는데, 나중에는 직접 밥도 차려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곤 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다.

또 업사이클링 관련 전시회에 자주 참여하는데, 관람객들이 브랜드를 알아봐 주실 때 제일 기쁘다. 특히 '작년에 이거 샀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다'고 해주신 말씀이 참 의미 있었다.

업사이클링 관련 미래 직업 전망을 바라본다면?

백화점에서 10년 후에야 업사이클링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 같다. 코햄체도 백화점으로부터 입점 제의가 오고 있고, 이미 팝업 매장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 관련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고, 이와 연관된 투자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바라본다. 작년만 해도 1년간 업사이클링 브랜드 400개가 생겼다고 한다. 확실히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멘토링을 부탁하는 연락도 꽤 오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는 친환경 소재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실 웨딩드레스를 업사이클링 해도 기본적으로 소재가 같아서 땅속에서 200년간 썩는 건 마찬가지다. 창업 초기에 업사이클링한 제품이 또다시 버려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했다. 단순히 업사이클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까지 준비해야 했다. 기회가 된다면 진로 멘토링도 하고 싶다. 작년에는 대구섬유박물관에서 업사이클링 강연을 통해 양말목으로 컵 받침 만들기, 버려진 원단으로 쿠션 제작하기 체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강연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재미있었다.

미래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요즘 친구들을 보면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라는 생각인데, 지금 당장 진로를 정해버리면 다른 길로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노력해보는 거다. 물론 성인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면 충분히 다른 진로를 찾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쌓아온 여러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진로와 연계해 잘 활용하면 된다.

TIP BOX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

: 관련학과

공예과, 공예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섬유공학과, 섬유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의류·의상학과, 코디네이션과, 패션디자인과

: 적성 및 흥미

- 버려지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것인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사물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 디자인, 의복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색채감각, 조형미, 미적 감각, 유행 감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당장의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꾸준히 한다는 생각으로 열정과 인내심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재미를 느껴야 한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지구를 지키는 디자이너가 될래요!

패션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업사이클'에 주목해보자. 업사이클을 통해 버려진 소재로 새로운 옷을 만들어내는 건 지구를 살리는 일이자, 기존의 옷을 나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다. 업사이클의 개념을 배우고 섬유, 패션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직접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진로체험 장소를 소개한다.

upcycling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착한 예술을 실천하는 공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업사이클'이란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시민을 위한 예술 공간이다. 국내 유일의 업사이클 거점 공간으로서 한 번의 소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쓰임, 또 다른 가치 창조로 이어지는 업사이클의 미학을 예술과 디자인을 통해 발견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재활용과 재탄생, 나눔이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착한 예술을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폐목재로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업사이클 가구 디자인 강좌, 집에서 못 입는 청바지나 데님 소재 천을 활용해 패션 소품을 만들어보는 수업, 자투리 가죽으로 동전지갑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업사이클 수업도 진행된다. 에코건축학교는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배워보는 건축 수업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주변의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디자인 모델을 만들어보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리플레이메이커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주변의 재료로 직접 업사이클 악기를 만들고 연습해 시민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업사이클 공연 프로그램이다.



1


2


3


4

1 건물전경
2 3 전시장
4 체험교육수업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 **교육문의** 02-2680-0754
: **관람문의** 02-2680-2086
: **신청방법**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www.gm.go.kr/up)

대구섬유박물관

섬유·패션의 역사와 미래가 있는 곳

대구섬유박물관은 섬유도시 대구에 위치한 섬유종합박물관으로, 국내외 섬유·패션산업의 역사를 조망하며 관련 자료들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으로 구성된 상설전시실이 있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역사와 복식문화를 전시하는 패션관, 섬유제조 공정과 시대, 용도에 따라 다른 거대한 섬유기계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산업관, 의료·IT·운송 등 각종 산업 부분에 활용되는 미래섬유에 대해 소개하는 미래관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관람 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섬유 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직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버려지는 폐원단을 활용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과 함께하는 진로교육도 운영한다. 못 입는 옷을 활용한 방석이나 쿠션 만들기 체험으로 업사이클 디자이너에 대한 직업도 소개하고 있다.

1 건물전경
2 2층 패션관
2 어린이 체험실
4 직조틀 체험수업



1


2


3


4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 **교육문의** 053-980-1033
: **관람문의** 053-980-1004
: **신청방법** 대구섬유박물관 누리집(www.dtmuseum.org)

통영

봄 바다 건너 한산도 여행

기후가 따뜻한 통영은 2월부터 쑥이 난다. 통영 사람들은 제철 맞은 향긋한 쑥과 살찐 도다리로 도다리쑥국을 끓여 먹는다. 초봄에 먹어야 제맛인 도다리쑥국으로 봄기운을 채우고, 봄 바다를 건너 한산도로 간다. 한산도 곳곳에 남아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더듬으며, 호젓하게 섬 여행을 즐긴다. 17개 마을을 품은 한산도는 제법 큰 섬이라,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맛이 있다.

글 · 사진 _ 김혜영 여행작가

한산대첩 현장을 지나며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한산도행 배에 올라타 쪽빛 바다를 감상한다. 같은 바다인데, 겨울과 봄의 빛깔이 다르다.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물결에 눈이 부시다. 승선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즈음, 400여 년 전 한산대첩의 현장을 지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전라좌수사였던 충무공이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했다.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이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왜적선을 에워싸고, 거북선을 앞세워 47척을 격침, 12척을 포획했다. 학익진 전술로 대승을 거둔 조선 수군의 함성을 상상하며, 그날의 바다를 건넌다.

한산도 선착장이 가까워질 무렵, 싸움에서 이긴 충무공이 갑옷을 벗고 땀을

한산대첩비 앞에서 한산도 앞바다가 훤히 보인다. 가운데 작은 섬이 해갑도이다.



1 제승당 앞바다에 있는 거북등대. 뒤쪽 언덕 위에 한산대첩비가 세워져 있다.
2 충무사에 모셔진 이순신의 영정
3 한산도와 추봉도를 연결하는 추봉교 위에서 바라본 진두마을 전경

식혔다는 해갑도(解甲島)와 거북선을 본떠 만든 하얀 거북등대(한산항등표)를 만난다. 제승당 앞바다 암초 위에 세워진 거북등대는 1963년부터 한산도 길목을 지키며, 이곳이 한산대첩지임을 알려준다.

거북등대 뒤, 문어포 언덕 꼭대기에는 20m 높이의 '한산대첩비'가 세워져 있다. 비석 아래 거북선의 용머리가 일본 도쿄 방면을 바라보는 것은 왜적이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겠다는 수호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용머리가 향한 방향을 바라보면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바다가 또렷이 보인다.

조선 시대 삼도수군통제영 본부였던 제승당

거북등대를 지나자 이내 한산도에 도착한다. 우선 제승당부터 들른다. 제승당 일대 사적지는 한산대첩 이후 제1대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충무공이 여수에 있던 통제영을 옮겨온 곳이다. 현재 이곳에 제승당, 수루, 한산정, 충무사 등이 복원돼 있다. 통영 시내에 있는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충렬사, 착량묘 등은 충무공 후대에 지은 것이고, 제승당은 충무공이 3년 8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제승당 매표소를 지나 왼쪽으로는 솔숲을, 오른쪽으로는 바다를 감상하며 1km 남짓 걷는다. 해안 산책로에서 바라본 바다는 섬 안으로 쑥 파고들어 잔잔한 호수 같다. 충무공이 병사들과 함께 마셨다는 우물과 조선 군졸이 지키는 대첩문을 지나, 언덕 위 충무문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제승당이 보인다.

'승리를 만드는 곳'이라는 뜻의 제승당(制勝堂)은 충무공과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했던 집무실이다. 충무공은 제승당을 본거지로 삼아 군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한산도를 남해안 방어 기지로 구축했다. 그러나 1597년 원균의 모함을 받아, 한산도를 떠나 백의종군하게 된다. 현재 제승당 안에는 한산대첩도, 사천해전도, 노량해전도와 임진왜란 때 사용한 천자총통, 제107대 통제사 조경이 쓴 제승당 편액 등이 전시돼 있다.

충무공이 활 쏘고 시조를 읊던 곳

제승당 옆에 있는 수루는 적의 동태를 살피던 망루였다. 수루에 올라서면 배를 타고 지나왔던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난중일기>에 수록된 '한산섬 달 밝은 밤~' 시조를 읊조려 본다. 수루에 서서 나라와 백성과 가족 걱정을 하며 밤잠을 설쳤을 충무공의 처지가 애달프고 애잔하다.

제승당 뒤쪽 해안절벽 위에는 충무공이 부하들과 매일 활쏘기를 연마하던 한산정이 있다. 과녁 위치는 145m 떨어진, 바다 건너 맞은편 산중. 활이 바다를 건너 과녁에 꽂혀야 한다. 해전에 대비한 활쏘기 훈련장으로 이만한 곳이 있을까. 충무공은 <난중일기>에 이곳에서 활쏘기 내기를 하고, 진 편에서 떡과 막걸리를 내어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을 수차례 남겼다고 한다.

제승당 앞마당의 홍살문 안에는 충무공 영정을 모신 충무사가 있다. 종2품 통제사 관복을 입은 충무공의 모습이 당당하고 늠름하다. 소나무들마저 충무사를 호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승당 외에도 한산도 내 마을 이름에서 임진왜란과 충무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산도의 중심 마을인 진두(津頭)는 조선 수군의 진영이 있던 곳이고, 염포(鹽浦)라 불렸던 대고포마을에는 군수용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었다. 제승당 뒤편 개미 蟻(의), 목덜미 項(항) 자를 쓰는 의항마을은 내뺄 길이 끊긴 왜군이 개미처럼 들러붙어 산허리를 파놓은 곳이라 하여 개미목이라 불린다. 매왜치(埋倭峙)는 왜군의 시체를 매장한 곳이라고 한다. 도보나 차량으로 한산도의 지명을 따라 '이순신 장군 따라잡기' 답사여행을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 한산도 배편

통영항여객선터미널(1666-0960)에서 두 개 해운 회사가 06:30분부터 18:30분까지 교대로 1일 14회 운행. 차량 선적 가능. 한산도까지 약 25분 소요. 한산도를 도는 마을버스가 제승당 선착장에서 배 도착 시각에 맞춰 대기한다.

EDUCATION NEWS

vol.476
MARCH

NEWS 01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이 지난 2월 4일 확정·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022.1.6.~1.20.)한 바 있다. 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대학 측은 적정규모화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지원금 중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의 배분 기준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에서는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환산정원 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사업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상한(15%)을 폐지했다. 단,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집행을 방지했다.

유지충원율 점검의 경우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 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을 적용하게 한다.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충원율 산출 시에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표 - 기본계획 관련 대학 주요 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대학 주요 의견	기본계획 반영내용
유지충원율 점검	• 첨단학과 신설, 대학별 4대 교육여건에 따른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 적용 등으로 대학마다 편입학생 선발 조건이 다르므로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고려필요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 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
	•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산출 시 초과분 포함 여부 ※ (예) 재학생 충원율이 120%인 경우, 100%까지만 산출에 포함하는지, 120%를 모두 포함하는지	•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충원율 산출 시에 인정
적정규모화 지원금	• 적정규모화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지원금 중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의 배분 기준 제시 필요	•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환산정원 산출 방식 제시
사업비 집행기준	•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상한(15%) 폐지 또는 조정 필요	• 인건비 상한 폐지 - 단,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집행 방지



NEWS 02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 자격기준 마련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현행으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인(私人)'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NEWS 03 장애학생 대학진학·맞춤형 지원 확대된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이 마련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가운데, 차별 개선이나 학습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에 따라 장애학생 선발인원이 확대되며, 장애학생의 진학상담과 대입 정보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각 대학에는 장애학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대학별 실태 평가와 상담, 연수 등이 이뤄지는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장애대학생을 지원하는 권역별 거점대학은 작년 7개교에서 올해 8개교로 늘어나며, 진로·취업 지원과 전공서적과 같은 대체자료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강현 님

'특별기획'에서 은퇴한 교장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간제교사까지 하시고 은퇴 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에서 참교육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자치시대 코너 양평군의 '선물상자'에 대한 기사도 인상 깊었다. 아이들이 계단에 앉아 군것질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장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고 저 또한 마음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부모와 학생들처럼 교육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개별적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학부모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김동석 님

교육포커스 '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을 고민할 때'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의 현황과 전망, 육식의 문제점, 채식급식에 성공한 외국 사례, 채식급식 성공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게 했다. 지구에서 살아온 또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는 생각에 육식 체질에 가까운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육식을 위한 축산업이 인간 유래 온실가스 중 18~20%를 배출하며, 단일산업 영역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반면에 전 인류가 완전채식으로 전환하면 식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70%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도 있었다. 해법은 명확해 보인다. 채식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채식 선택권을 제도화해 누구나 원할 때는 채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김은경 님

'진로직업인' 항공우주공학자_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어린 시절 로켓에 흠뻑 빠져있던 꿈을 잃지 않고, '홀로, 유일한'이란 수식어가 익숙했던 소수자로서 보이지 않는 편견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끝에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발사체연구단에서 발사체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임석희 책임연구원 기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우주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고, 한 번 꽂힌 것에 치열하게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역시 우주를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EVENT

전년도 교육뒷분(p.40)



○○○○○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교육부는 2022년 이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